

보도자료	보도일시	2020. 7. 23.(목) 11:00	 통계청
	배포일시	2020. 7. 23.(목) 08:00	
	담당부서	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	
	담당자	과 장: 정남수(042-481-3720) 사 무 관: 서동훈(042-481-3721)	

인구주택총조사 100일 앞으로!
비대면조사 확대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만반의 준비 갖춰!

- 통계청(청장 강신욱)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. 이번 총조사는 처음으로 종이없는 전자조사로 실시하여 조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 통계서비스도 앞당길 예정이다.
 - 특히 조사항목은 정책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여 ‘안전과 환경’, ‘반려동물’, ‘활동제약돌봄’, ‘1인가구 사유’ 등을 새로운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였다.
- 통계청은 조사기간 중 코로나19가 확산할 경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.
 - 국민들은 사는 곳으로 발송된 안내문을 이용하여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, 모바일, 전화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.
 - 이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방문조사를 하지만 응답자가 희망하면 비대면 조사도 가능하다.
- 강신욱 통계청장은 “2020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읽고 국가 및 지역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”라며, “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조사에 적극 참여하면 우리의 총조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계적 모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”고 밝혔다.

	동 자료는 ‘출처 표시’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붙임1 : 2020 인구주택총조사>

① 2020 인구주택총조사, 왜 중요한가

-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·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·가구·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.
- 그리고 사회통계로는 유일하게 읍면동 단위까지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통계의 근간이 되고, 200종이 넘는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된다.
- 또한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2차 가공 통계가 작성되고, 민간기관의 연구와 기업의 마케팅 자료로 쓰이며, 국가통계포털에서 백만건이 조회되는 등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통계이다.

② 2020 인구주택총조사, 어떻게 달라지나

▶ 국민의 비대면조사 참여방법 확대

- 2015년까지 PC로만 가능하던 인터넷 조사를 모바일로 확대하여 사전에 배부된 안내문의 QR코드로 즉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,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도 가능하다.
-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코로나 19의 걱정없이 비대면으로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.

▶ 면접조사에 태블릿 활용으로 현장조사 체계 혁신

- 종이로 된 지도와 조사표를 태블릿의 전자 지도와 조사표로 대체하여 조사원은 조사 대상을 쉽게 찾아 가고, 조사와 동시에 내검 및 자료 전송을 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.
- 이에 따라 지자체 상황실 규모를 읍·면·동 3,500개에서 시·군·구 300개로 축소하고, 조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, 조사원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여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.
- 또한 태블릿의 전자지도에 거처의 조사 상태를 색깔 및 모양으로 다르게 표시해 조사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.

▶ 종이없는 전자조사로 예산 절감 및 공표시기 단축

- 2015년보다 예산을 24억 절감하고, 공표시기를 3개월 단축하며, 환경보호에도 기여하였다.

▶ 사회·경제 변화상 및 정책수요 반영

- 조사항목 선정시 현 사회상 및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, 연구기관 및 학계 등에서 18회의 의견수렴을 걸쳐 고령화(활동제약돌봄), 가족구조 변화(1인가구 사유, 혼자 산 기간, 반려동물), 다문화(국적취득연도), 안전(소방시설, 마시는 물) 등의 신규항목을 추가하였다.

▶ 행정자료활용 확대

- 국민 20% 대상의 표본조사항목 55개중 10개는 행정자료로 대체되어 실제 현장조사항목은 45개로 국민의 응답부담은 감소한다.
- 한편 2020년 신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자료로 보완한다.

▶ 외국인의 조사참여 제고

- 인터넷조사 외국어조사표를 2종에서 5종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러시아어, 캄보디아어)으로 늘리고, 기숙시설용 외국어 조사표도 신규로 제공한다.
- 또한 외국인 대상의 홍보도 온라인과 지역에서 확대할 예정이다.

③ 통계청,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

▶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통해 타당성 검증

- 조사항목, 전자조사 시스템 및 태블릿이 현장조사에 적합한 단계별로 3년간 테스트하여 본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

▶ 실시본부 구성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

- 지난 5월 실시본부 현판식을 갖고 시도 기획조정실·국장으로 구성된 시도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방향과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- 지난 6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시군구 직원들과 조사 전반을 공유하였다.

▶ 조사요원 및 교관단 및 교육 강화

- 조사요원의 사이버교육은 3배가 늘어난 9시간으로 의무화하고, 집합교육에서는 태블릿 실습교육을 사례중심으로 실시한다.
- 교관단은 4차례동안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, 특히 전자조사의 핵심인 시스템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.

▶ 태블릿 구매 및 학교에 무상대여

- 총조사에 사용할 태블릿 28천대를 구매하고, 학교에는 코로나19 대비 온라인개학을 위해 태블릿 만대를 무상 대여하였다.

▶ 전자조사 인프라 구축

- 전자조사 입력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, 태블릿용 전자지도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, 콜센터 장소를 확보하였다.

▶ 홍보대사 선정 등 국민중심 홍보 준비

- 7월 8일 배우 박서준, 아나운서 박선영씨는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국민들의 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.
- 지난 6월에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공개하여 조사 소개 및 활용, 참여방법 등을 국민들에게 안내한다.

4] 2020 인구주택총조사, 어떻게 진행되나

- 전 국민의 20% 가구를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인터넷, 모바일 및 전화 등 비대면 조사를 먼저 실시한다. 이 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는 담당 조사원이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. 방문 조사 시에도 응답자가 희망하면 비대면 조사도 가능하다.
- 현장조사 항목은 이름, 나이, 교육정도, 혼인상태, 통근통학, 경제 활동상태, 임차료 등 4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. 조사 결과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다.

<붙임2 : 2020 조사항목>

	전수 항목(16)	표본 항목(55)		
		현장조사(45)		행정자료(10)
인구 (34)	①성명 ②성별 ③나이 ④가구주와의 관계 ⑤국적 ⑥입국연월 ⑦1년 전 거주지 ⑧국적 취득연도*	①성명 ②성별 ③생년월일 ④가구주와의 관계 ⑤국적 ⑥입국 연월 ⑦교육 정도 ⑧교육 영역 ⑨출생지 ⑩아동 보육 ⑪활동 제약 ⑫활동 제약 돌봄* ⑬통근·통학 여부 ⑭통근·통학 장소 ⑮이용 교통수단 ⑯통근·통학 소요시간	⑰경제활동상태 ⑱종사상지위 ⑲산업 ⑳직업 ㉑현 직업 근무연수 ㉒근로 장소 ㉓혼인 상태 ㉔혼인 연월 ㉕출산 자녀 수 ㉖자녀 출산 시기 ㉗추가 계획 자녀 수 ㉘결혼 전 취업 여부 ㉙경력 단절 ㉚사회 활동 ㉛생활비 원천	①1년 전 거주지 ②5년 전 거주지
가구 (16)	①가구 구분 ②주거시설 형태	①가구 구분 ②1인가구 사유* ③혼자 산 기간* ④반려(애완)동물* ⑤마시는 물* ⑥소방시설 보유 여부* ⑦사용하는 방의 수	⑧난방시설 ⑨주차장소 ⑩건물 및 거주층 ⑪거주 기간 ⑫주거 전용 영업 겸용여부 ⑬점유 형태 ⑭임차료	①주거시설 형태 ②타지 주택 소유 여부
주택 (6)	①거처의 종류 ②층 방 수 ③주거시설 수 ④주거용 연면적 ⑤대지 면적 ⑥건축연도			①거처의 종류 ②층 방 수 ③주거시설 수 ④주거용 연면적 ⑤대지 면적 ⑥건축연도

* 신규항목('15년 대비)